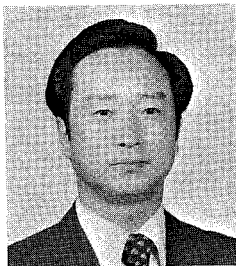


'87年度 國際貿易 環境과 貿易政策의 方向



辛 國 煥
商工部 商易局長

1986년은 우리나라 무역사상 흑자를 기록한 일대 전기를 이루었으며 이는 3저현상도 한 요인이지만 그보다는 우리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인 흑자 경제 기반의 유지,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선진제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등에 대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1. 黒字貿易 時代의 開幕

지난해 우리는 大韓民國 貿易史上 처음으로 黒字를 달성함으로써 國際收支 黒字와 自力成長의 一大 轉機를 마련하였다.

돌이켜 보면 1950年 當時 輸出 2,500萬弗, 輸入 8,000萬弗의 貿易赤字에서 시작하여 해마다 赤字幅이 늘어나 지난 '85年까지 貿易에서 345億弗에 達하는 外債를 지게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실로 감회를 금치 못할 꿈같은 성취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貿易黒字는 油價引下에 힘입은 바 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輸出의 활기찬 伸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지난해에 '80年代들어 가장 높은 輸出伸張을 하게 된 것은 3低라는 輸出與件 變化의 德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80年代들어 物價安定으로 다져진 經濟體質 위에 企業이 製品高級化와 多樣化, 新技術開發과 生産性 向上, 그리고 海外市場 開拓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우리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이 강화된 결과였다.

또한 輸出의 伸張은 物價安定, 높은 經濟成長과 雇傭增大 및 國際收支의 대폭 改善을 가져와 우리 經濟의 先進産業社會로의 跳躍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實證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第6次 經濟社會發展 計劃期間中,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先進圈에 進入할 展望이다.

이러한 國家社會의 飛躍의 發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國際化 즉, 對外開放과 競爭을 통해 실력을 꾸준히 키워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歷史的 發展段階의 으로 이처럼 重要한 時期에 輸出의 활력을 다시 찾아 큰 幅의 貿易黒字를 달성했다는 것은 우리의 開發意志에 自信과 勇氣를 북돋워준은 물론 새로운 이정표에 선 여유를 갖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과 경제성장은 선진산업사회의 도약을 가능케 하고 있다.

1987年은 黒字經濟의 새時代를 다져야 하는 해이다.

輸出競爭力의 부단한 培養과 함께 急變하는 貿易環境에 能動的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全天候 貿易基盤」을 構築해야 하는 甚한 課題가 우리 輸出業界에 주어진 것이다.

2. 올해의 國際貿易 環境

최근의 世界經濟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5弗을 조금 넘는 線에서 安定되리라던 國際原油 價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20弗線에 육박하고 있고, 美·日間에 合意點을 찾았다던 달러 價値는 또다시 下落勢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世界經濟도 우리에게 精確한 予測을 허락 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動搖의 危險性은 內在하고 있지만 소위 3低 現象은 지속될 것이나, 先進國 經濟의 구조적인 沈滯要因은 쉽사리 治癒되지 않아 世界經濟는 지난해와 비슷한 3% 内外의 成長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交易伸張率도 4%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달리 弱勢와 低金利 趨勢가 지속되면서 美國經濟는 조심스럽게 회복의 기미를 보이겠지만, 輸入需要는 상당히 萎縮될 것으로 予想되는 反面, 日本經濟

는 円高가 본격적인 景氣下降 요인으로 擡頭될 것으로 보여 內需 促進을 위한 政策的 노력의 활발해지면서 輸入도 다소 增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EC 諸國은 금년에도 構造的인 불황에서 시원스레 벗어날 수 있는 契機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開途國 經濟 역시 1次 產品의 價格安定으로 눈에 띄게 好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主要 交易相對國들의 經濟 狀況이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恩貨와 歐洲通貨 強勢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우리의 輸出競爭에 유리한 여건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년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先進國의 保護主義 雲雨氣가 한층 더 高潮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소위 新興工業國들이 그 重要한 타겟으로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累積되는 貿易赤字 해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末 中間選舉에서 民主黨이 兩院을 지배함에 따라 輸入規制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相互主義에 입각한 市場 開放을 한층 거세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纖維, 鉄鋼 등에 대한 規制의 사슬을 죄어 놓았고, 年初에는 GSP 受惠幅을

대폭 縮小시켰으며, 우리로서는 이제 輸出産業化 初期段階에 있는 半導體 등 소위 하이테크 製品과 自動車 등에 대한 規制 움직임이 강력히 擡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01條 協商을 원만히 타결한 이후에도 農産物 등 그들의 關心品目과 廣告業 등 서비스 市場의 開放을 끈질기게 요청해 오고 있다.

게다가 輸入 切上을 통해 기대했던 貿易赤字 減少效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이제는 우리의 輸入을 포함하여 對美 輸出이 많은 新興工業國 通貨의 評價切上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간 行政府의 견제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강력한 保護主義 法案들이 今年中에 立法化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保護主義의 攻勢는 歐洲諸國과 동등한 대우를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3. 우리 貿易의 課題

이와 같이 결코 순탄치 않은 國際貿易環境속에서 對內的으로 우리 貿易은 더욱 무겁고 어려운 課題들을 안고 있다.

금년에도 適正水準의 輸出 伸張勢를 持續시켜 健實한 經濟成長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지난해 이룩한 黑字 經濟의 基盤을 한층 더 튼튼히 다져 놓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對外與件이 비교적 유리하리라고 予想되는 '80年代末까지 500億弗台의 輸出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하여, 輸出産業의 供給能力을 확충하고 우리 商品의 質과 聲價를 劃期的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産業과 貿易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시급히 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先進國의 保護主義를 源泉的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市場을 더 많이 확보하여 우리의 市場基盤도 확고히 다져 놓아야 하며, 尖銳化되는 國際競争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企業들의 對應能力 또한 꾸준히 國際化해 나가야 한다.

한편, 밀려오는 開放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對應하고, 새로운 世界貿易 秩序의 흐름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黑字貿易國으로서 또한 世界貿易의 發展을 끌고 나가는 立場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定立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對內的으로도 經濟運用 基調의 변화와 多元化하는 社會的 요구를 能動的으로 受容해 나가는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4. 貿易政策의 方向

이러한 課題들을 풀어 나가기 爲하여는 우선 우리 輸出産業의 供給能力을 꾸준히 확충시키면서, 輸出構造를 高度化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企業들의 새로운 設備 投資를 촉진시키고, 研究開發 意慾을 鼓舞하기 위한 多角의인 政策努力을 꾸준히 推進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輸出主導 商品으로 浮刻되고 있는 電子, 自動車, 機械 등 技術集約的 産業의 生産能力을 增強하는 한편, 이에 相應하는 素材 및 部品の 調達能力과 獨自의 技術開發能力을 갖추는 것이 時急하다.

또한, 纖維, 신발 등 輕工業製品의 品質 및 生産性 向上과 商品 多樣化를 위한 補完 投資도 서둘러야 한다.

이와 아울러 産業構造의 弾力性을 높이고 部門間 均衡있는 成長을 도모하는 次元에서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輸出産業의 底邊을 계속 擴大해 나가는 데도 重點을 둘 것이다. 中小企業의 의욕적인 輸出參與를 助張하고, 이들의 國際競争力을 培養하기 위한 多角의인 대책을 推進하는 한편, 특히 部品, 素材, 高級生活用品 등을 중심으로 中小企業의 專門化를 꾀하고, 大企業과의 원활한 協力關係를 構築토록 하며, 地方 輸出産業의 競争基盤도 다져 나아갈 것이다.

한편, 이제는 우리 輸出이 量的인 成長보다는 質的인 高度化를 통해 輸出의 附加價值를 提高시키는 노력을 적극화해야만 長期的으로 輸出伸張의 基盤을 다질 수 있으므로 輸出商品의 質과 外貨稼得率을 높이고, 海外市場에서의 聲價

를一新시키는 데 좀더 調和있고 次元높은 政策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着手된 部品과 素材의 國産化를 더욱 密度있게 推進하고, 이들 開發된 製品의 사용을 擴大해 나가며, 企業의 새로운 商品 및 技術開發, 品質 및 生産性 向上을 위한 노력을 더욱 擴散시키는 데 注力할 것이다.

이를 推進하는 데는 政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企業 相互間의 有機的 協力이 매우 重要하므로 이를 強化할 수 있는 政策도 마련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돌아오는 '88올림픽은 이와 같은 企業의 노력을 복돋울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諸般 條件을 造成할 것이다.

우리 貿易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課題의 하나로 擡頭된 것이 바로 國別 貿易 不均衡을 改善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그간 높은 輸出伸張勢를 持續시켜온 過程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先進國의 保護主義를 부채질하고, 輸出産業의 構造的인 輸入誘發 性向을 深化시킴으로써 우리 貿易의 앞날에 가장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바삐 是正하는 데 金후 貿易政策의 最大의 力點이 주어질 것이다.

이를 推進해 나가는 데는 短期的인 소극적 戰略보다는 長期的인 적극적 戰略을 바탕으로 擴大均衡의 基調로 定着되도록 할 것이며, 産業, 通商 및 貿易政策의 調和있는 總力對應 체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對日貿易 逆調의 早速한 改善을 위해서는 이미 成案된 5年 計劃을 金년부터 蹉跎없이 推進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는 人貨의 持續的 強勢를 活用하여 對日輸出을 劃期的으로 늘리기 위하여, 100個의 有望商品을 發掘하여 이들의 市場適應力을 補強하고, 對日輸出 專門 企業의 育成에 着手할 것이며, 우리 企業의 日本 市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政策의 手段을 최대 動員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對日輸入 比重이 큰 機械類, 部品 및 素材 등 800個 品目の 國産開發에 새로이 着手할 예정이며, 業界의 自律的인 輸入先 轉換을 적극, 誘導할 計劃이다.

對美 關係는 長期的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深化시킨다는 次元에서 우리 企業들의 合致된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政府에서도 內實있는 對美 輸出 管理와 適正水準의 對美 輸入 増大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는 企業의 協調가 없이는 效果를 보기 어려운 것이다.

對美 通商外交側面에서도 이제는 民間次元의 협력을 增進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이를 通하여 우리의 現實과 우리가 推進하고 있는 多角的인 노력을 그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꾸준한 노력이 展開되어야 한다.

政府는 특히, 産業 및 技術次元에서의 兩國間 협력을 擴大하는 데 力點을 둘 것이며, 그들의 國內市場 開放 요구에 對해서는 國內産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彈力的으로 對應해 나갈 것이다.

美國 및 日本과의 貿易不均衡 問題와 같은 次元에서 우리의 主要 交易相對國인 EC; 캐나다, 호주 등과의 均衡있는 交易 發展을 위해서도 事前에 대응해 나갈 것이며, 開途國과의 協力基盤을 공고히 하여, 이 地域에 새로운 市場拋點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造成할 것이다.

이와 같이 構造的인 不均衡을 是正하고, 새로운 輸出의 영역을 開拓해 나감으로써 우리 産業과 貿易의 體制를 가다듬는 한편, 中堅貿易國으로서의 面貌를 浮刻시키고, 이에 相應하는 貿易의 國際化를 追求해 나갈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輸入自由化는 先進國의 開放 요구를 적절히 受容하면서 予示計劃에 따라 秩序있게 推進해 나갈 것이다.

다만, 開放化에 따른 國內産業의 衝擊을 緩和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脆弱한 國內産業의 競爭力을 키워 나가는 한편, 今年中에 産業被害救濟制度를 定着시켜 이에 대처해 나갈 것

이다.

한편, 우리 企業과 貿易에 종사하는 人力의 수준을 國際水準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企業의 經營管理의 先進化와 人力開發의 확충을 뒷받침해 줄 것이며, 특히 綜合貿易商社의 機能多角化, 通商專門人力 및 高級세일즈 人力養成, 中小企業의 國際化를 적극 支援할 方針이다.

이와 아울러 通商外交의 幅을 더욱 深化·擴大하고 특히, 새로운 國際貿易秩序 形成에 主導的인 立場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本格 開

始되는 뉴 라운드 協商에 철저한 對備策을 樹立하여 機動的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利益이 最大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우리 貿易은 또한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 고비를 힘차게 넘어서서 韓國經濟의 先進跳躍의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貿易에 종사하고 있는 企業인과 勤勞者들의 經驗과 知慧가 더욱 強力하게 凝集되기를 바란다.

